

金氏烈行錄의 葛藤樣相

申圭源

<目次>

I. 序論

2. 화씨와 김씨의 葛藤樣相

II. 姑婦間의 葛藤樣相

III. 結論

1. 유씨와 김씨의 葛藤樣相

I. 序論

〈金氏烈行錄〉은 작자나 창작 연대를 알 수 없는 古小說이다. 이 소설은 활자본이 〈공귀팔귀전〉과 合本되어 있는데, 版本이 있는 표지가 떨어져 발행 연대를 알 수 없으나, 1920년대 출판된 活字本과 같다¹⁾고 해제편을 통해 밝혀 두고 있다. 작품의 분량은 총 18면으로 짧은 소설이다.

이 소설은 繼母話素²⁾가 있으며, 이 화소가 주인공의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 소설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형 소설에 속한다.

이 소설은 古小說 가운데서 姑婦間³⁾의 갈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1) 東國大學校 韓國學研究所 編, 活字本 古典小說 全集 卷二(亞細亞文化社, 1976).

本考의 대본은 이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앞으로는 面數만 밝혀두기로 한다.

2) 「화소는 이야기를 이루는 독립된 요소들이며, 화소는 특이하고 인상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쉽사리 파괴되지 않고 용이하게 기억되며 독립적인 생명을 지니기에, 같은 화소가 서로 다른 유형에서 나타날 수 있다. 사람은 화소가 될 수 없으나 행위자(잔인한 계모)는 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繼母話素」라고 규정하였다.

張德順의 3인, 口碑文學概說(一潮閣, 1979), p. 52.

3) 「太宗實錄 卷27에서 大司憲 柳觀은 有妻而更娶後還合先妻者 先娶妾後妻者 一時並畜三妻者 등의 非를 難하여 後娶를 妾이라고 하는 方針으로 나갔다. 이미 太宗 13年(1413)에 重婚禁止法이 確立되었다. 그리하여, 종래의 多妻婚을 沒落시키는 劃期的인 方策으로써 正妻 이외는 모두 妻의 身分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本來 祭禮上 正妻가 死去한 후 改娶하면, 繼妻도 先妻와 다름이 없이 嫡妻이므로 先後二妻 共히 耐廟하는 것이 當然하다」는 것은 계모가 正妻로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서 주목되는 작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고부간의 갈등 양상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져 두 번에 걸쳐 연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고소설에 나타난 고부간의 갈등 양상을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 업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소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도 없는 실정이다. 다만, 작품의 해제나 작품군으로 묶어서 다룰 때 단편적으로 논술하고 있을 뿐이다.⁴⁾

그러므로, 필자는 이 소설의 갈등 양상을 제모형 소설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논술하고, 고부간의 갈등 양상을 이 소설을 통해 구체적으로 고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이므로 本考를 집필하고자 한다.

Ⅱ. 姑婦間의 葛藤樣相

가족 구성원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으로 맺어진 부부와 그들이 낳은 자녀들로 구성되어진다. 계모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등장하여 그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정의 질서를 이룩하고자 한다. 그런 움직임에서 가정내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해 가고 있다. 따라서, 며느리도 혼인에 의해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계모와 마찬가지로다.

계시모와 며느리는 다른 집에서 婚入한 동일한 조건, 유사한 입장에 있으면서도 不和不信의이다. 며느리는 후사 계승을 위한 정실이라는 입장에서 계시모보다는 사회적인 규범면에서나, 가정의 윤리적 측면에서 더욱더 떳떳한 신분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데 비하여, 계시모는 후실이라는 측면에서 신분상의 지위로 인하여 열등 의식에 사로잡히기 쉽다.

고부간의 갈등은 일반적으로 위계 질서상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이 생기나, 조선조 사회에서는 윤리적 측면으로나 현실적으로 갈등을 노정할 수 없는 처지였다. <金氏烈行錄>에 등장하는 며느리 김씨는 시어머니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갈등을 유발할 動因을 갖고 있지 않다. <金氏烈行錄>에 나오는 시어머니는 계시모이므로

金斗憲, 韓國 家族制度 研究(서울대학교 출판부, 1980), pp. 474~475의 要約
계모나 계시모는 형식적으로는 어머니요 시어머니다. 계모가 당시의 사회적 인식에서 신분적 지위가 열세에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등장하여 전실 소생의 부와 부부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전실 소생인 갑준과는 모자간이고, 그의 아내와는 고부간이 되는 것이다.

4) 李能雨, 古小說研究(宣明文化社, 1974).

갑준의 친어머니 만큼의 신분적 우위를 획득하지 못했다. 제시모는 여가장권에 대한 계산된 욕구 충족의 발로로 정실과 마찬가지로의 신분적 지위를 획득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소설 작품에서 고부간의 갈등을 표현한 작품은 많을 듯하나,⁵⁾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이 작품만이 전형적인 갈등 관계로 작품의 구성이 이루어져 있다. 趙東一 教授는 신소설을 다루면서, 전대 소설 중에는 제모가 모해자로 등장하는 경우는 흔해도 시어머니가 모해자로 등장하는 소설은 한 편도 찾을 수 없다⁶⁾고 밝히고 있으나, 이 작품의 갈등 양상을 천착해 보면 바람직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다.

제모 유씨가 모해자로 등장하여 전반부는 전실 소생인 갑준이가 살해되자 제시모인 유씨와 갑준의 아내인 김씨와의 갈등 관계가 이루어지고, 후반부는 삼취 제시모 화씨와 김씨 사이에 갈등 관계가 이루어진다. 本考에서는 두 갈래로 나누어 갈등 양상을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유씨와 김씨의 葛藤樣相

혼인은 남녀간에 애정을 바탕으로 맺어져야 하나, 제트를 맞이하는 혼인은 애정보다는 전실을 대행할 수 있는 대행모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맞아들인다. 아버지인 장제현과 갑준간에는 혈연으로 맺어진 부자 관계이지만, 제모인 유씨와 갑준과는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모자 관계가 성립된다. 그러므로, 제현은 부부 관계의 애정보다는 나이 어린 갑준에게 부자 관계의 애정을 더 쏟을 수밖에 없다. 제현의 본능적 속성에 의해 애정은 분산된다. 분산된 애정이 갑준에게 치우치므로 유씨는 애정 분산에 대한 욕구로 말미암아 애정 전종의 원인을 찾게 되고, 그 원인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갈등은 시작되는 것이다. 전반부는 그 갈등의 심화가 전실 소생의 아내인 김씨에게 轉移된 양상으로 나타나므로 고부간의 갈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金氏烈行錄〉은 다른 제모형 소설과 마찬가지로 전실의 죽음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결손을 보충한다는 면에서 재취로 유씨를 맞이한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 따뜻한 아버지의 보살핌 아래서 성장하는 것이

5) 민요에서는 고부간의 反目을 나타낸 작품이 있는 데 비하여, 고소설에는 그럴 개연성은 있으나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金氏烈行錄〉밖에 없다.

6) 趙東一, 新小說의 文學史的 性格(서울대학교 韓國文化研究所, 1973), p. 82.

순리이다. 그러나, 어머니가 일찍 득병하여 죽자, 아버지는 어머니의 역할을 대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계모를 맞아들인다. 이는 가족 구성과 가정 행복의 복원을 의미한다. 행복했던 가정에 아내가 죽으면 가정 행복의 불균형은 필연적이다.⁷⁾ 그러나, 계모는 전실 소생과는 혈연 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모자 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공동 사회적 가정이 이익 사회적 가정으로 변질되며, 그 결과로 딸미암아 가족 구성원간에는 타산적으로 변모되어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이 야기되는 것이다.⁸⁾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는 가정에는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가 불완전한 상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미리부터 안고 있다. 계도가 등장하는 이 소설도 이러한 점에서 근원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다. 가정은 본질 의지에 의하여 결합되는 공동 사회이지⁹⁾ 출발부터 이익 사회적인 모습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정의 행복은 가족 구성원간의 애정을 토대로 해야 한다.

계씨도 유씨와 며느리 김씨의 갈등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단락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기로 하자.

- (가) 연씨가 득병하여 갑준이가 어릴 때에 죽다.
- (나) 계현은 내정을 위하여 유씨를 계모로 맞이하다.
- (다) 계현은 갑준에 대한 걱정을 심하게 하다.
- (라) 유씨가 병준을 낳고, 갑준에 대한 계현의 애정을 의심하다.
- (리) 유씨의 흥제로 갑준이가 결혼 첫날밤에 살해되다.
- (박) 김씨가 유씨의 흥제를 밝히려다.
- (사) 계현이가 유씨와 그 소생을 처형하다.
- (아) 계현이가 재산을 김씨에게 보내고 집을 떠나다.

계현은 부부의 애정을 바탕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전실 소생의 애처로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代行母의 입장에서 유씨를 맞아들였다. 그러나,

「인간에 마음이 업서 디하로 좇츠가고즈 마음이 불현듯 호덕 갑준니 눈알히 잇서 그 형상이 극히 불상호덕 아즈를 위하야 구츠이 소난 모양이더라 세월이 여류 호야 솜상을 지닌지라 집안에 유씨 업서 너정 황화호덕 부탁호 곳이 업난지라 세 부득이 저령를 경영호덕 좌우에 혼쳐가 담지호덕 계현니 적시 허락지 안코 극히

7) 李演載, 「薔花紅蓮傳의 社會現象學的 考察」, 韓國語文學 探究(民族文化社, 1983), p. 149.

8) 퇴니스, 「共同社會와 利益社會」, 黃性模譯, 世界思想全集 13(三省出版社, 1976) 참조.

9) 퇴니스, 前掲書, p. 96.

떡볶이하더니 맛참 근처 유씨에게 규슈 잇스되 식덕이 결비하기로 유명하더라」(p.4)

계현은 유씨와 애정을 바탕으로 한 결혼이 아니라, 내정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한 <현신적인 가사 노동의 대행자>¹⁰⁾로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계현은 가정을 생각해서 대행토의 입장으로 마지 못해 계모를 맞아들였으므로 애초부터 애정은 형식적인 면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계현은 계모와 전실 소생을 통해 연씨가 생각나고, 계모는 그로 갈미암아 가정내에서 전실 연씨의 존재 가치를 의식하게 된다. 계모는 전실 소생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실과의 갈등이 시작되고, 잠재적으로 경쟁을 하게 된다.

계현이가 유씨를 맞이한 것은 (가)에 대한 (나)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기때 때문이다. 그러나, 항상 갑준과 연씨 생각으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다.

「갑준을 생각하죽 그 소성이 아닌고토 아마도 간격이 업지 못하리라 하야 의심을 늦치 못하고 지낼새 출립하논 곳과 침식하논 즈리에 잠시라도 써나면 섭섭하야 심스를 지향치 못하더라」(p.5)

「먹양 연씨를 생각하고 서로 눈물을 흘니며 갑준의 정세를 도라보고 극히 불상한 소식을 잠시도 늦치 못하니 남이 보기에 상슈롭지 아니하야 뵈이고 뉴부인의 생각에는 의심이 자연니 더 나더라」(p.5)

(나)의 목적으로 유씨와 결혼했으면 계현은 좀더 사려 깊게 행동해야 한다. 비록 「전실 주제의게 소랑치 안키로 시랑이 미양 근심」(p.7)한 끝에 전실과 그 소생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종립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계현의 (다)와 같은 행동은 그 사랑이 너무나 맹목적이어서 유씨에게 전실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제기를 마련해 준다. 유씨는 자신의 존재 가치가 상실된 것은, 남편의 애정이 전실 소생에게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계모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 주고 편중된 애정을 독점하기 위하여 애정 편중의 원인을 해소하려고 한다.

유씨도 계현의 가정에서 한 가족의 구성원, 한 남편의 아내, 자식들의 한 어머니로서 가부장의 사랑을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소외만을 당했다고 하면 분개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당시의 사회가 비록 남성 우위의 사회라고 하더라도 여성 하위의 제도적 현실은 유씨에게 너무나도 참을 수 없는

10) 金宇鍾, 「罪囚를 爲한 不忘碑—薔花紅蓮傳再考—」, (現代文學 35호, 1957년 11월호) p. 200에서 「유씨를 아내로서가 아니라 집안일을 치닥거리할 일꾼으로 틀어 온 배려수」라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비애이며 고통인 것이다.¹¹⁾ 남이 보기에든 상스럽지 못한 일이거늘, 당사자인 유씨에게는 더욱 참을 수 없는 고통의 가정 생활이었을 것이다. 유씨는 자신의 인간적 애정을 무시당하자, 갑준을 살해할 음모를 꾸미게 된다. 유씨는 연씨가 확보했던 가부장적 애정과 여가장의 신분적 획득을 위한 방편으로 갑준과 김씨의 결혼 첫날밤에 음흉한 흉계를 행동으로 옮긴다.

「홀런 일기 팔 척 장신니 칼을 집고 신방에 다라드러 문을 켜치고 신랑의 머리를 버려 가지고 부지거쳐러라 차시에 신부는 경혼 기결하얏고 즈연 집안이 경동하야 이러노죽 기미 참담하호 심시 황홀호지라 급히 신방을 드리본죽 방문이 파헤친지라 놀나 방안으로 드러가 살펴보니 신부는 기결하얏고 신랑은 머리가 간 곳 업노지라 세상에 이 갓혼 번괴 또 어딴 잇스리요」(p.5)

유씨는 직접적 살인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간접적 살인 방법으로 바꾸게 된다. 이 방법은 〈鄭乙善傳〉처럼 계도가 하수인으로 하여금 전실 소생을 죽인다. 〈金氏烈行錄〉은 동네 노파의 아들이 유씨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 하수인들은 대체로 두식하며 인정과 의리에 메마른 자거나 보수에만 탐욕되는 인간형이라는 공통성을 지닌다. 하수인은 어의 추구형 인간이므로 타산적이다.

유씨는 김씨에게 貞操의 汚辱으로 인해 姦夫가 전실 소생 갑준이를 죽인 것처럼 위장한다. 조선조 사회의 여성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정조를 오욕되게 하였다. 이는 여성에게 치명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결혼 첫날밤을 맞은 며느리에게 이러한 오욕의 누명을 덮어씌우는 것은 매우 잔인한 방법이다. 이처럼 잔악한 흉계가 성공된다면 며느리를 不慮한 여성으로 단정하여 疏薄을 맞게 되는 것은 장엄한 귀결이다.

뜻밖의 변고에 김씨는 기절하고, 계현은 침식을 전제하고 천명이 自盡하기를 바랄 뿐, 아들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밝혀낼 생각은 하지 않는다.

유씨는 김씨의 행동 거지로 팔미암아 갑준이가 죽었다는 것으로, 사회적 인식을 김씨에게 돌림으로써 현실적으로 승리를 이끌어 낸다. 유씨는 전실 소생인 갑준을 제거함으로써 김씨는 장씨 가문에서 소박맞을 것이므로 가정 내에서도 확고한 여가장의 위치를 확보하고 자기 소생인 병준에게 後嗣繼承을 함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게 되면 가정의 주도권을 모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 李演載, 前掲 論文, p.152 참고.

(바), (사), (아)는 가장권의 행사를 통해 승패의 反轉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조씨의 무죄화는 고소하고 신랑의 죽음은 또한 괴상한즉 밝혀낼 도리가 있소 오니 날을 남북으로 횡장을 차리고 전지로 로지를 갖조와 주시면 불과 괴일에 가히 알 도리가 있을 거시오 만일 아지 못하논 날 도라와 죽소와도 늦지 아니홀 듯 하외이다 홀더 그 부인이 듯고 이윽히 생각하야 왓 아논 일이 잇슬진된 가하거니와 아난 도리가 업다 하야도 압히셔 죽나니보다 나가서 죽는 것이 낫도다 하고 즉시 횡구를 초려쥬고 그 부친은 아지 못하게 감안이 보너더라 이세 신위 드령의 복칙으로 청도포에 석덕를 씌고 복건 쓰고 보교를 타고 구종 소명 거나리고 신랑 집 근처로 향하야」(p.6)

위의 인용은 母女間의 대화다. 출행의 이유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도리를 다하기 위한 것이다. 김씨는 남편을 죽인 원수와 정조의 오욕이 섞워진 이중 박해를 벗어나기 위하여 유씨의 흥제일 것으로 판단하고, 신랑집 근처의 노파집에서 기거하며 이익 추구형 인간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흥제를 밝혀낸다.

조선조 사회에서 여성은 집안의 부당한 처사나 박해, 모해에도 짓눌려 살아야만 했다. 또한, 남자에게 눌려 여자의 활동이 제한되고 가정에서만 치거해야 하는 여자로 태어난 뱃힌恨의 표출이 男裝女人으로 나타난다. 당시의 사회에서 김씨는 능동적으로 어떤 일에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男裝女人으로 변신하지 않으면 남편에 대한 아내의 도리를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의 굴레도 벗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씨의 男裝은 소설이라는 문학 장르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하여 부당한 처사를 행한 자들을 찾아내어 응징함으로써 조선조 여성 독자들에게 뱃힌한을 통쾌하게 풀어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작품에 등장하는 男裝女人과는 달리 자신이 흥제의 원인간 밝혀낼 뿐 응징에 대해서는 가장권을 행사하는 시부의 판단에 맡길 뿐이다.

제모형 소설에 등장하는 전설 소생의 여주인공들이 피동적, 수동적, 소극적인데 비하면, 김씨는 갈등의 원인과 그 해소를 위해 적극적, 능동적, 행동적으로 노력하는 여인이다. 여하한 한이 있더라도 남편을 죽인 원수를 찾아 복수하고, 자기의 누명도 벗고, 수절하려는 烈女¹²⁾였다.

12) 金善豐, 「嶺東地方의 孝烈說話文學考」, 우리 文學研究 제 3집(우리 文學研究會, 1978), p.8에서 烈女를 六禮를 갖추어 결혼한 남편이 일찍 死亡해도 改嫁하

(마)에 나타난 유씨의 흥제는 (바)에 의해 밝혀지지만, 가해자의 목적과 동기가 분명히 나타나 있다. 이는 공동 사회적 가족 관계가 이익 사회적 입장으로 변모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김씨가 당시의 규범과 아내의 도리를 알세운 윤리 추구형 인간인데 비하여, 유씨는 자기 소생의 갑준에게 중가론 삼으려는 뚜렷한 목표 의식이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 실리를 내세운 이익 추구형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류씨 부인나 흥제를 먹고 전실죽제를 업시고 제 소생으로 증가를 삼으려 호야 혼인날 밤에 신랑을 죽이라 호야 돈을 만니 주고 죽익을 구호온즉 불초흔 죽식이 더답호거늘 로되가 아모리 만류호와도 듯지 안습고 그날밤에 가서 신랑의 머릿골 버혀다가 류씨 부인의게 밧칩습더니 그 뒤로 시랑의 힘초가 죽시 도라오 시딕 류씨 황망공경호야 엇지할 줄 모로다가 그 머릿골 고간속 쌀독에 넛코 고간문을 잠갓습노딕」(p.8)

유씨는 갑준을 살해하고 자기 소생인 병준에게 宗家를 삼을 목적 아래 흥제를 꾸땀다. 갑준을 살해하면 새로운 가정 질서가 이룩되고, 유씨도 확고한 정실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흥제가 탄로나지 않고 성공된다면 며느리 김씨는, 「신부논 세상에 슬지 못호 거시라 호야 방중에 가도고 급게 죽이이라 호고」(p.6)라고 했으므로 살아 남지 못했을 것이다. 살아 남았다 하더라도 남편을 죽인 원수를 밝혀내지 못하는 한 疏薄을 맞았을 것이다.

조선조 사회에서의 상속인 및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다.¹³⁾

(1) 자녀가 제 1 순위로 공동 상속한다.

(2) 자녀가 없는 부 또는 처가 사망하면 그의 배우자가 상속한다.

(3)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없을 때에는 피상속인의 본족이 상속하게 된다.

(4) 상기 제항의 상속인이 없는 상속 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한편, 남편이 죽은 뒤에 이르러는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이 그 재산을 상

지 않는 여자, 또 남편이 타살을 당하면 복수를 하고 守節하는 여자, 子孫이 없는 경우 殉從하는 여자 등을 들고 있다. 한편, 金龍德, 「婦女守節考」, 李朝女性研究(淑明女子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76), p.133에서는 「高麗史」卷121. 烈女傳序를 인용하고 있다. 烈女란 危難을 당하여 목숨으로 貞操를 지킨 또는 오랜 세월을 걸쳐 고난과 싸우며 守節한 婦女를 말한다(臨亂冒白刃 不以死生易其操者)고 한다.

13) 丁堯燮, 「李朝時代に 있어서의 女性の 社會的 位置」, 李朝女性研究(淑明女子大學校 亞細亞女性問題研究所, 1976), p.182의 要約.

속함은 말할 것도 없지마는 아들이 없을 때는 남편의 친족 남성을 양자로 삼아 그에게 재산을 상속하게 할지인정, 혼자된 여성에게는 상술한 바와 같이 재산 상속은 허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성은 그 지위와 생활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하등의 권리를 가지지 못하였다.

유씨가 갑준을 살해하면 상속권은 자기 소생인 병준에게 전부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갑준의 아내는 재산 상속권이 없게 된다. 계현은 유씨가 상속권쟁탈을 목적으로 갑준을 죽인 사실을 김씨에게 듣고, 진상을 살살이 알아보지도 않은 채 유씨와 그 소생을 처형하는 우유부단한 행동의 일면을 드러내고 만다. 다른 계모형 소설의 작품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아닌 제3자나 초월적 세계에 의해 징계의 처형이 이루어지지만, 이 작품은 가부장인 시부에게 의해 「류부인과 그 소생을 다락에 가두고 안뒤로 시초를 만나 쫓듯코 불을 질러 소화」(p.9)시키는 점은 매우 이색적이다.

〈장화홍련전〉에서는 배좌수가 전실 소생의 두 딸이 애매하게 죽은 줄 알면서도 혼자 한탄하거나 슬퍼할 뿐이다. 계모와 그 소생에게는 制裁를 가할 방책을 생각하지도 않고 知而不知함으로 배좌수의 우매와 무능이 여지없이 폭로되고 있다. 그러므로, 전실 소생도 배좌수의 우매와 무능을 인정하고 죽어서는 가정 외적 세력의 힘에 호소하여 계모를 징계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金氏烈行錄〉의 계현은 흥계의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으나, 절대적인 가장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김씨는 흥계의 원인을 밝혀 가정 외적 세력의 힘에 호소하지 않고 시부에게 낱알이 고함으로써 절대권을 소유한 시부는 무기력한 배좌수보다는 강력하게 가장권을 행사하는 면모를 보였다.

계모의 흥계가 (바)에서 밝혀지고, 시부가 (사)에서 계모와 그 소생을 처형함으로써 재산권은 상속 순위에 의하지 않고 절대권을 행사하는 가장답게 시부가 행사하고 마는 것이다.

「묵함을 짜서 아즈의 머리를 냇코 집에 가진 보물과 전답 문권을 냇갓치 츠즈 묵함과 갓치 츠부에게 보내고」(p.9)

(아)에서는 계모로 인한 유씨와 김씨와의 갈등이 해소된다. (아)는 김씨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필요하고, 극적인 전환을 비현실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현실적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현실감을 갖는다. 그러므로, 고부간에 갈등이 야기될 때, 공동 사회적 가족 구성원의 관계가 윤리 추구형이고, 이익 사회적 가족 구성원의 관계가 이익 추구형이다. 두 구성원 사

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 윤리 추구형이 긍정되고 이익 추구형이 부정되는 것은 사회 인식적인 면이나 윤리적, 규범적인 면으로 볼 때, 당시의 사회는 전실 소생의 무리들이 승리해야 한다는 기대쪽으로 사회적 욕구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에게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도리가 있고, 시부에 대한 며느리의 도리가 있기 때문에 소멸된 고부간의 갈등을 일으킨다. 이것이 화씨와의 갈등을 초래하는 動因이 되고 만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시모는 전실 소생을 통해 전실과 간접적 갈등 관계가 성립된다. 전실 소생에 대한 애정의 분산이 편중되어 나타나자 제시모는 가정의 애정을 독점하기 위하여 애정의 장애물인 전실 소생이 며느리의 姦夫에 의해 살해된 것처럼 오욕의 누명을 씌운다. 전실 소생이 죽자 그 갈등은 아내에게 轉移됨으로써 고부간의 갈등 관계가 성립된다.

제시모 유씨와 며느리 김씨의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전실과 후실, 그 소생들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에 있어야 할 가정의 애정 편중에 의하여 나타나지만, 이면적으로는 유씨가 자기 소생을 宗家로 삼아 재산권 상속을 하려고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전실 소생 갑준을 제거하면 재산 상속은 자동적으로 병준에게 주어진다. 그러므로, 제현이가 조금만 사려 깊은 행동으로 전실 소생과 계모에게 공동 사회적 가정으로서의 교량적 역할을 했다면 이익 사회적 가정으로 변질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현은 전실과 전실 소생에 탐닉됨으로써 계모는 타산적 이해 관계에 빠져 가정의 주도권 다툼으로 변한 것이다.

2. 화씨와 김씨의 葛藤樣相

전반부의 제시모 유씨와 며느리 김씨 사이의 갈등보다 후반부의 제시모 화씨와 며느리 김씨 사이의 갈등은 처음부터 그 양상이 다르다.

전반부는 가족 구성원으로 볼 때 他家에서 婚入된 당시에 원천적으로 그 갈등을 봉쇄하려 하나, 후반부는 가족 구성원의 서열 개념상으로 볼 때 화씨보다 김씨가 먼저 婚入되어 가정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 전반부의 유씨는 六體를 갖추어 正室로 맞이하지만, 화씨는 他家에 출가하였다가 상부한 과부를 맞이하였기 때문에 유씨보다는 신분상 열등한 위치에 있다.

조선조 사회는 과부의 재혼을 죄악시하고 守節을 강요하던 사회였으므로 再嫁自體만 하더라도 여성의 도리를 당과한 행동이다. 가난하고 의탁할 곳

없는 과부의 위치가 되어도 烈女崇尚과 再嫁禁止를 하던 사회였으므로 가치가 떨어졌다. 그래서, 처는 두 남편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여 成宗 8년부터는 재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가한 여자의 자손은 관직의 임명은 물론 과거의 赴試도 허용하지 않았다.¹⁴⁾

《金氏烈行錄》에서는 김씨가 화씨를 시부의 첩으로 맞이하였기 때문에 제시모의 위치가 당당하지는 못하다. 시부와와 결합이라는 측면에서는 계층상 수직적 관계이나 친구라는 점에서는 수평적 관계에 놓인다. 김씨는 며느리이지만 가정의 주도권을 잡고 있으며, 화씨는 시부의 효봉구고를 바라는 뜻에서 맞이한 부차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가정의 위치면에서나 사회적, 윤리적, 규범적 측면에서는 며느리보다 신분적 지위가 열세에 있다. 이러한 이중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갈등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제시모 화씨와 며느리 김씨의 갈등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단락으로 나누어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 (가) 김씨가 시부를 모시고 조손이 함께 화목하게 지내다.
- (나) 김씨가 시부의 환거하심을 민망히 여기다가 화씨를 삼취로 맞이하도록 주선하다.
- (다) 시부가 김씨와 매사를 의논하다.
- (라) 화씨가 거가의 권세를 잡으려고 용제를 꾸미다.
- (마) 화씨가 유배수와 친결하고 김씨를 옥에 가두다.
- (바) 김씨의 시비 옥매가 화씨의 흥제를 황제께 알리다.
- (사) 황제가 화씨와 유배수를 공초하여 징계하다.
- (아) 김씨의 아들 해릉과 황제의 혜선 공주가 결혼하여 행복하게 지내다.

후반부는 가정의 권세를 잡기 위한 주도권 갈등이 핵심을 이룬다.

김씨는 남편의 원수를 찾아내어 징계했으므로 일차적인 아내의 도리는 다한 셈이다.

「김씨 친정에 도라와서 목숨을 죽진하야 신랑을 좇고 녀즈의 행실을 다하랴 하더니 맞출 시집으로조차 소름이 오되 신랑의 머리를 보내여 신배와 함께 무드라하며 주리로 전하야 오던 청전 구물과 전답 문권을 모다 보내여 손죽 은근니 중덕헌 부탁이라」(p.9)

김씨는 三從之義를 좇으려 하나, 장씨 집안의 靑氎舊物과 田畓文券을 보

14) 丁堯燮, 前揭 論文, p.182.

내오니 감히 죽지 못하고 가정 관리의 책임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전반부의 갈등이 (가)로 인하여 완전히 해소되나, 김씨는 烈女인 동시에 孝婦이므로 (나)와 같이 화씨를 시부의 삼취로 주선한다.

「김씨 이웃집에 혼가지로 성장하던 녀조 잇으니 인물이 절민하고 지혜 총민함으로 어려서부터 김씨로 더부러 명의 규밀하더라 일즉 타인의게 출가하얏다가 불행이 상부하야 청년 과슈가 되거늘 츄시 김씨 그 부인의 환거호심을 티양 민망이 너기다가 이 녀인의 과거호를 보고 맛당이 결연하고 풍용호를 타 시부께 고하야 첩으로 명하시기를 권호터 사랑이 처음에는 허락지 아니 하얏다가 나중예 조부의 효성을 어긋기 어려와 부득이 허락하니 이에 과슈를 다려다가 석로 섬길서 조호 명성을 다하야 화씨 익이하더라」(p.12)

화씨는 시부의 사랑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鰥居하는 시부와 화씨를 며느리의 도리로써 혼인시킨 김씨의 효성에 감복하여 부득이하게 맞아들였다. 이와 같은 일은 採集說話¹⁵⁾에서도 나타나는 특이한 관계로서 매우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부는 화씨를 정실의 지위로 대우하지도 않고 있으며, 화씨를 맞이하는 방법으로 볼 때도 정실의 지위를 차지할 자격도 없다. 신분적 지위의 열세는 소설에 나타난 호칭에서도 알 수 있다. 재취 유씨는 〈유부인〉으로 표현한 데 비하여, 화씨는 〈첩〉, 〈서모〉, 〈화녀〉 등으로 표현한 것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다)로 볼 때, 화씨는 어디까지나 장씨 집안의 여가장의 지위에 형식적으로 머물러 주기를 김씨와 시부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가족 구성원으로 들어온 이상 화씨도 가정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화녀 님의 사랑의 사랑함을 입어 별실의 지위에 처하리……지가의 권세를 잡지 못호으로 분울호 마음이 만으나 김씨의 명성이 지극하고 행금이 엄숙하리 감히 누를 도리 업고 조 사랑의지 니간도 경솔이 하지 못호지라 이에 더욱 조심하야 저의 도리 극진하리 그 마음을 아난 지 업고 조 사랑의게 니간도 경솔이 하지 못호지라」(p.12)

화씨의 이와 같은 의도는 (라)에서 표면화되고, (마)에서 갈등의 절정을 이룬다. (나)와 같이 김씨가 화씨와 시부를 며느리의 도리로써 부부의 관계를 맺어준 것이 갈등의 발단이 된다.

15) 成者說, 韓國口碑傳承의 研究(一潮閣, 1979), pp.221~223.

「속담에 나르기를 은혜가 원슈된다 하더니 화씨 녀저 김씨의 은혜를 넣고 겹쳐야 어려서부터 호가지로 성장하야 정의 친밀호지라 그 속에 다른 뜻시 잇을 줄이 야 귀신인들 엇지 착양호리요」(p. 13)

화씨는 김씨에게 背恩忘德한 일을 서슴지 않는다. 더군다나, 시부도 「비록 조부로되 공경하야 미소를 그 조부와 의론치 아니호난 일이 업고 그 조부의 뜻을 어긋난 일이 업노지라」(p. 12) 화씨보다는 김씨에게 총애가 편중되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전반부에서 시부는 김씨에게 靑氈舊物과 田畓文券을 모두 넘겨 주었으므로 비록 화씨가 시모의 위치에 있지만, 김씨는 이미 장씨 집안을 이끌어 가는 입장에 있다. 매사는 시부와 의 함의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시모의 역할이 상실되어 있는 실정이다. 화씨는 김씨의 친구로서 김씨의 행적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치와 권한을 성취하기 위한 지위에 대한 욕구로 김씨를 모해하기 시작한다. 화씨는 기존의 윤리나 관습에 구애됨이 없이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시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김씨를 자극하거나 시부에게 기존의 윤리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는 조심스런 행동을 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면적으로는 간악한 흥계를 품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시부의 사랑이 김씨에게 편중되어 있고, 김씨의 정성이 지극하고 行祭이 엄숙하여 경솔하게 과거사를 들추어 이간하다가는 오히려 자신의 계교가 탄로하기 때문이다. 혹시 시부가 화씨의 흥계를 알게 되면 가장권을 발동하여 전반부처럼 화씨를 징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화씨가 (라)의 목적을 성취하려 함으로써 갈등은 더욱 심화된다. 이를 위하여 화씨는 (마)와 같이 유태수를 끌어들여 일방적인 공세를 가한다.

「적색로 김씨 단처를 발작호시 미양 제 님으로 바로 일캣지도 아니호며 사랑의 게 바로 말호지도 아니호고 반다시 소를을 시겨 과거 설화를 사랑의 귀에 드러가면 의심될 만치 호니 과연 사랑이 의심되노 소단니 겹겹 집혀」(p. 14)

김씨는 화씨의 흥계가 시부에게까지 미치어서 시부의 총애까지도 잃어가는 형편이므로 화씨의 흥계를 전반부처럼 적극적으로 밝힐 힘도 잃어버리고 만다. 시모의 모해는 시기로 나타나다가, 누명죄움으로 바뀌어진다. 시모의 흥계는 「어린 신랑이 첫날밤을 다 지내지 못호얏노던 슈턱하야 성남호 거시 턴하에 회혼 일이라 호고」(p. 14) 시부에게 奸言으로 참소함으로써 시부의 의심을 강하게 한다. 그리하여, 해룡도 진정한 손자가 아닐 것이라는 결론

에 이르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해룡은 갑준과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첫째, 初禮를 치른 첫날밤 깊이 잠든 사이에 자객이 갑준의 목을 베어 갔으므로 첫날밤이라도 유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둘째, 소설에 나타난 김씨의 행실을 보면 제삼자와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로 볼 수 없다는 점.

세째, 소설의 표제가 말하듯이 김씨의 열행을 중심으로 한 열녀의 일생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조의 누명은 화씨 자신이 원세를 잡기 위해 김씨를 축출하거나 제거할 명분으로 등장한 것이다. 만고의 열녀인 김씨에게 화씨의 흉계가 가해오자, 시비 옥매가 화씨를 독약으로 제거하려고 했지만 시부가 죽고 만다. 이 사건으로 옥매와 김씨가 옥에 갇히면서 사건의 해결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다. 옥매는 뇌물로 이익 사회적 집단인 옥사장이를 매수하여 옥에서 나와 황제에게 원정일장을 올린다. 가정의 문제가 가정 내부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가정 외적인 힘에 의해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가정의 문제를 처리할 절대권을 소유한 자가 없기 때문이다. 화씨가 유태수의 힘을 빌어 갈등의 反轉을 꾀하려 함으로써 유태수보다 힘의 우위에 있는 황제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다. 황제는 진상을 밝힌 후 모해자를 징계한다.

(사)로 말미암아 화씨와 김씨의 갈등이 해소되며 잃었던 가정의 질서는 회복된다. (마)에서 갈등의 절정을 이루는 것은 전반부에서 보인 김씨의 열행, 효성, 행동 규범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가정 질서의 회복을 틈튼히 하는 하나의 입사식 절차이다. 김씨가 시부의 살해자로 옥에 갇히는 시련은 이 소설의 주인공에 대한 통과의례의 절차이다.

김씨는 시부에게 免驪하기를 권하며 자신이 주선한 화씨의 誣告에 의하여 시련을 당하게 된다. 현실적으로는 시부의 삼취보다 마당 과부¹⁶⁾와 같은 김씨 자신의 再嫁가 얼마나 절실했겠는가? 그러나, 당대의 再嫁禁止와 烈女崇尙의 굴레에 묶여 화씨의 모해 대상만 되지 않았던가? 시부에 대해서는 지극한 孝婦요, 지아비에게는 烈婦요, 해룡에게는 자애로운 어머니요, 계시모 화씨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김씨였다.

16) 심대의 청상과부와 혼례만 올려 놓고 아직 정식 동거 생활로 들어가는 于禮도 올리기 전에 상대방 소년이 죽는 것을 뜻한다. 이 소설의 김씨는 나이가 밝혀져 있지 않으나, 초례를 치른 첫날밤에 계시모의 흉계에 의하여 남편(갑준)이 죽었으므로 마당 과부와 같은 처지이다.

김씨가 당하는 옥고의 시련은 (아)와 같은 행복한 결말을 이끌기 위한 영광스런 통과 의례다. 이 시련을 극복하고 황제로부터 김씨는 孝烈婦人, 옥매는 忠婢愴閨門이라는 加資를 내려받는 것은 영광된 앞날을 위한 시련의 하나다. 김씨쪽은 그의 원조자들에 의하여 가정의 주도권을 되찾고 화목한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작품의 전반부는 전실 소생이 제모의 모해로 살해되자 그 갈등이 김씨 자신에게 가해졌다. 그 갈등의 총계는 김씨의 적극적인 사전 규명에 의하여 밝혀지나, 그것은 아내와 며느리의 도리에 따른 것이다. 후반부는 김씨 자신이 주선한 계시모 화씨에 의하여 갈등이 일어나나, 그 갈등의 총계는 김씨에 의하여 밝혀지는 것이 아니고 시비 옥매에 의하여 밝혀진다.

전반부에서 김씨가 총계의 원인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은 시부의 가장권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며, 후반부에서 적극적으로 총계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시부의 총각이 김씨에게서 멀어졌고, 가장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가정 내적 문제가 가정 외적 세력의 힘에 의해 징계되는 것은 가정 문제가 이미 가정 외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그 해결은 가정 외적 세력의 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전반부의 계시모 유씨가 자신의 아들을 宗家로 삼아 재산권 상속을 피하려는 것과, 후반부에서 화씨가 가정의 권세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남의 가문에 재취나 삼취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초취보다는 열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이나 권세를 보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재취나 삼취는 초취보다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에서 열등시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가정 내적 지위가 미미함을 가정의 재산 및 권세를 잡음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보다 상승시키고 가정의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을 필연적으로 가하게 된다.

며느리를 고해하는 계시모 유씨와 화씨, 시기하거나 모해할 줄 모르는 김씨의 갈등에서 김씨는 계시모를 직접 공격하는 일이 없고 복수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고해의 진상이 저절로 규명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

김씨는 유교적 전통 사회의 도덕적 규범인 孝·烈을 중시하여 윤리적, 도덕적 가치관에 따라 행동한 것이 찬양되어 있다. 계시모가 주장한 재산권 상속 문제나 가정의 권세를 쟁취하려는 현실적인 문제는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익 사회적 이윤 추구형 인간들이 婦德을 앞세운 도덕적 당위에 의

하여 부정되고 있다. 결국, 김씨와 계시모와의 대결 관계에서는 선한 자가 패배할 수 없다는 도덕적 당위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므로 김씨의 승리쪽으로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다. 이 소설은 김씨의 부덕과 현실적 당면 문제의 괴리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며 실리적인 가치 질서의 대두를 의미하고 있다.

시부가 처음에는 가장으로서의 절대권을 갖고 있으나, 계시모 유씨와 화씨를 맞아들이면서 후실의 간교에 서서히 말려 들고 있다. 시부가 김씨의 딸이라던 전적으로 동감하다가 화씨의 간교로 말미암아 김씨를 총애하던 마음도 없어지고 「히롱도 진정 손조로 아니하니 김씨 그 소식을 짐작하고 본흔 마음이 축양업스나 하늘과 싸에나 하소하며 귀신의게나 증거홀가」(p. 14) 하며 자결할 결심을 하는 것을 볼 때, 명문거족의 시부도 후실에 의해 점차 戲畫化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Ⅲ. 結 論

〈金氏烈行錄〉은 계모형 소설에 속하는 古小說이며, 姑婦間의 葛藤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앞에서는 姑婦間의 葛藤樣相에 국한하여 논의하였으며, 그 內容을 要約하여 結論으로 삼고자 한다.

시어머니나 며느리는 혼인으로 인하여 他家에서 새로운 家族構成員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시어머니는 後室이고 며느리는 後嗣繼承을 위한 正室이라는 입장에서 가정에서의 신분적 지위가 다르다. 신분적 지위가 열세인 繼母는 자신의 욕구 충족의 발로로 며느리를 모해하여 갈등을 일으키게 한다.

제취 유씨는 전반부에서 자신의 소생인 병준을 宗家로 삼아 재산을 상속하려고 했고, 삼취 화씨는 가정의 권세를 잡기 위하여 갈등이 더욱 심화된다. 繼母는 가정에서의 신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며느리에게 일방적인 공격을 취한다. 이것이 누명죄음으로 나타난다. 유씨는 貞操의 汚辱을, 화씨는 살인자의 누명을 씌워 가정내의 주도권을 빼앗고, 새로운 가정 질서의 회복을 꾀하려고 한다. 繼母는 뚜렷한 목적 의식 아래 며느리를 제거하려고 하였으므로, 이인 추구형 인간으로서 공동 사회적인 가정의 질서를 붕괴하고 실리적인 면을 강조한다. 그러나, 婦德을 앞세운 도덕적 당위에 의하여 繼母의 행위는 부정되고 며느리가 승리하는 쪽으로 反轉됨.

로써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다.

며느리가 전반부에서 繼孃母의 흥계 원인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은 시부의 가장권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아내의 도리를 다하고자 한 것이며, 후반부에서는 자신에게 씌워진 흥계의 원인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은 孃父의 총애가 자신에게 떨어졌고, 가장권을 행사할 孃父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반부는 가정내에서 繼孃母가 징계되지만, 후반부는 가정 내적 문제가 가정 외적 문제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가정 외적 힘의 우위에 의하여 繼孃母가 징계된다.

繼孃母의 흥계로 인하여 며느리가 두 번이나 큰 시련을 당하고 황제로부터 孝烈婦人이라는 加資를 받는 것은 영광된 앞날을 위한 하나의 통과의례 절차로써 행해지는 시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시련을 극복한 며느리와 그 소생에게는 영광의 앞날만 전개되는 것이다.